

# 민주당 지지도 對 민생당 인물론 싸움

### 4·15 총선, 이곳이 관심 선거구

#### <7>고흥·보성·장흥·강진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선거는 재선의 현역 국회의원의 민생당 황주홍(68)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53) 후보 양강 구도로 진행 중이다. 여기에 무소속 김화진(61)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민주당 김승남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한명진 예비후보를 누르고 세를 불려가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50대 초반이라는 젊음과 당 경쟁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변함 없는 지지세 등을 손꼽 삼아 전진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며 지지층도 결집시키는 모양새다.

민생당 황주홍 후보는 3선 강진군수, 재선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그간 쌓은 조직력을 앞세워 표심을 잡고 있다. 황 후보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한 듯 '당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물론은 인물을 뽑지 않으면 당을 이끌 수도, 더 나은 세상을 열 수도 없다'며 인물론을 강조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선거구 4개 군(郡)이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지역발전, 인구유입 전략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 김승남 후보는 ▲5대 의정 목표 ▲10대 정책과제 ▲전남 중해안권 관광허브 전략 및 4개군 개별 공약을 구성했다. 5대 의정 목표는 재선 국회의원인 될 경우 복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일하는 국회·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의원직 파면이 가능한 국민소환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초연금 2023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보육예산 100% 중앙정부 부담 등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정책과제에는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 제도화, 무역이동공제(FTA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참여 의무화), 농업 예산비중 5% 이상 상향,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 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등을 담았다.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전남 중남해안권을 대기업 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지역발전 공약도 밝혔다. 전남중남해안권에 호텔, 콘도, 골프장, 항공레저 교육 및 체험시설, 가족관광단지, 토요시장, 치유의 숲 등 체류형·체험형 관광단지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부산 및 전남동부권, 서부권을 찾는 관광인구를 중남해안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조성



| 정당    | 민주당   | 민생당   | 무소속   |
|-------|---|---|---|
| 이름    | 김승남(53)                                     | 황주홍(68)   | 김화진(61)                                     |
| 학력    |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미주리대 대학원 졸업 정치학박사                               | 전남대 일반대학원 체육학박사                             |
| 경력    | (현)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 (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현)전라남도체육회 자문위원 회장                          |
| 주요 공약 | ·보육예산 100% 정부 부담<br>·기초연금 2023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 ·국가 전체 예산의 3% 수준인 농업예산 10% 인상<br>·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 |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br>·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어업 문화관광특구 조성 |

### 민주당 김승남, 젊음 내세워 지지층 결집

### 민생 황주홍, 인물론 앞세워 표심 공략

### 무소속 김화진 후보도 도전장

### 후보 모두 지역발전·인구유입 공약 내놔

해 득량만, 강진만권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장흥공약으로는 장동IC-장평봉IC 4차선 확충, 수출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건설 등을 제시했다. 보성에는 울포항 관광형 국가어항 승격 추진, 녹차산업 수출기반 조성, 보성차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폐각쓰레기 고부가 자원화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벌교에는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 설치 공약했다. 답사 1번지 강진에는 국립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건립, 고려청자박물관 국립화 추진, 아열대 소득작물 대단위 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고흥에는 녹동·량량도-장흥수문 연륙교 건설, 무인기(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주홍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이 될 경우 300만 농어민의 대변인으로서 싸우지 않는 국회의 상장이 되어, 더 많은 예산과 더 큰 국책사업을 지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현, 사·군·구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공약했다. 농업 분야 공약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을 현행 3%에서 10%로 늘리고, 농민수당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면세유를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청년 농업인 창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산 분야 공약으로는 수산직불제 적용 확대, 김산업 육성법 제정, 지방어항 지정 및 어업기반 정비, 양식보험 국고보조 확대,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수산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를 내걸었다. 유모차가 다니기 편하게 인도를 정비하고, 출산 장려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장인 육아휴직시 국비로 지원하고, 시간제 돌봄 단가를 인상해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서민 1000원 여행선, 100원 택시 국비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 지역 공약으로는 고흥-봉래 4차선 확장, 대서-도양 국도 77호선 승격, 도양-안양 연륙교 건설,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양읍-과역면 도시가스 공급, 고흥 축구고등학교 설립 등을 제시했다. 보성 지역에는 국립 자연연구소 설립, 울포권 여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해양미래과학관 건립, 보성 노인회관 이전, 주암림 피해보상 강화, 키위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

장흥에는 국가대표 선수훈련장 제2선수촌 건설, 축산농가 축분처리장 설치, 노력형 고등어 선망어업단 유지, 수출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강진에는 작전 무인IC 설치, 신전면 사초리-마량면 연륙교 건설, 김인 박물관 건립, 칠랑 광역상수도 설치, 병영성 복원사업 조기 완공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김화진 후보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대한민국 농어업 문화관광특구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년 후엔 전남에서 가장 무사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가장 먼저 소멸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전남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정당은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판을 짜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김화진으로 확 바뀔테라"고 호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판세 분석

지역정치권에서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선거는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53) 후보가 몇몇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서서 것으로 나왔지만, 3선 강진군수를 지내고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황주홍(68) 민생당 후보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표심이 민주당 김승남 후보쪽으로 일부 기울었지만, 조직력과 인물 경쟁력을 앞세운 황주홍 후보의 추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소속 김화진(61) 후

### 김승남 여론조사 앞서지만 황주홍 추격 만만찮아 결과 예측 불허

보가 분주히 선거구를 뛰고 있지만 김승남-황주홍 양강 구도에서 이렇다할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민생당 전남도당 측은 목표 선거구 박지원 후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후보와 함께 황주홍 후보 선거구를 '승리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생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소 앞서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닥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목포시(박지원), 해남·완도·진도(윤영일)와 함께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민주당과 막판까지 해를 만하다"고 민주당 대세를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국 판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세가 약한 전남에서는 민주당, 민생당 구별이 큰 의미 없고 누가 당선되든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실을 게 분명한 만큼 유권자들이 인물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생당 도당 관계자는 "중요한 건 인물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이 기대된다면, 호남 지역민들은 전략적으로 인물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며 "황주홍, 박지원, 윤영일 의원과 맞붙는 상대 후보는 막판까지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

### 광주시 산하 16개 공공기관 직원 69명 채용

#### 다음달 16일 통합 필기시험 이 시장, 투명한 채용 당부

광주시가 산하 16개 공공기관 간부와 직원 채용에 나선다.

광주시는 "도시공사 등 16개 유관 공공기관 직원 69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도시공사 13명, 도시철도공사 18명, 환경공단 11명 등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2명), 신용보증재단(3명), 디지털진흥원(2명), 복지재단(1명), 과학기술진흥원(1명), 여성가족재단(2명), 그린카 진흥원(1명), 평생교육진흥원(1명), 한국학 호남진흥원(3명), 장애인체육회(3명),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3명),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4명), 장애인종합지원센터(1명)도 직원을 채용한다.

통합 필기시험은 다음달 16일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류전형, 면접,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추진한다.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응시희망자는 20~27일까지 광주시 공

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gwangju.saramin.co.kr>)에서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해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류전형,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추진한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산하기관 간부로 적격자가 채용되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여성가족재단 사무처장, 빛고를 건강타운 본부장을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에서 역량 있는 적격자가 채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테크노파크는 인공지능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은 노인들이 건강한 광주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이라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관련 실·국은 인사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전문성과 혁신성 등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사가 채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채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첫 보급

#### 고령·여성농업인 안전성 확보 대당 550만원...1000대 보급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모두 55억 원을 투입, 전국 처음으로 여성농업인과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1000대를 보급한다.

전남도는 최근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로 인해 농촌의 주요 운반 수단인 경운기의 운전·조작에 어려움이 많아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는 농작물·농자재 등 운반과 작물 재배·관리를 위한 이동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우선 농가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대당 당가 550만원 기준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하면 된다. 보급 기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기계 성능과 안전성 검증 등을 마친 기종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추진하는 'e-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발전과도 연계하기 위해 도내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으로 보급·지원할 방침이다.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운반차를 구입한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매업체가 사전에 작동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스마트 플랫폼 개발 텔스타홈텔 광주에 AI연구소 추진

스마트 공장 플랫폼 개발 업체인 텔스타홈텔이 광주에 인공지능 연구소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광주시에 텔스타홈텔은 7일 시청 비즈니스트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미래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사업 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텔스타홈텔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기술 자문, 인공지능 연구소와 생산공장 설립 추진, 기업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텔스타홈텔은 현대자동차 협력사로 최근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의 품질 생산성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